선율이 흐르는 한 여름밤 정취

광양시립예술단 찾아가는음악회 백운산 등 5곳서

광양시립예술단 소속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휴양림 등 피서지에서 7~8월 두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12일 진상면 백학공원에서 시립국악단을 시작으로, 26일 동광양하나로마트에서 소년소녀합창단, 27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시립합창단 등이 오후 7시30분부터 각각 공연한다.

또 8월10일 봉강면 성불사에서 시립국악단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23일 태인동주민센터 광장에서 시립합창단이 '행복음악회'를 갖는 등 피서객과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립예술단은 지난 2010년 창단된 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공연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벌꿀 풍년인데 양봉농가는 한숨만

보성군, 2년연속 생산 늘었지만 유통망 없어
저렴한 외국산에 밀려 고전… 소비대책 시급

"벌꿀이 풍년인데도 한숨이 나옵니다. 외국산 저렴한 꿀에 밀려 국산 벌꿀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국산 꿀 소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문승현(54)씨는 30여 년 동안 벌을 길러왔다. 지역 양봉연구회를 이끌어 가면서 연구와 체험으로 고품질 꿀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는 물론 전국으로 정보수집에 다니는 '악바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유례 없는 벌꿀의 풍작이지만, 문씨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넘쳐나는 꿀을 소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양봉협동조합마저 재고량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올해는 꿀을 납품받지 않기로 하면서 전업 양봉농가는 물론 중·소규모 양봉농가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문씨는 "개인소비 판매로는 한계가 있다"며 "계속 늘어만 가는 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 학교 급식과 군인들의 반찬 조리 시 첨가 감미료 중 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방부, 교육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보성군 양봉협회 총무 김연수(56)씨는 "양봉의 경우 이동경비, 채밀경비, 생활경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최근 불경기 여파로 꿀 소비가 줄어들어 양봉농가의 채산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꿀과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쏟아질 중국산 꿀 등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김씨는 "국산 질 좋은 벌꿀이 제대로 가격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협회 등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성군에는 230여 양봉농가가 1만2000통에서 벌꿀을 생산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茶를 마시고 茶를 배운다" 보성군에서 하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난 10일 제암산휴양림과 태백산맥 문학관을 견학한 후 한국차박물관에서 차를 마시며, 차의 역사와 전통 다례를 배우고 있다. 보성군은 8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정에 희망 전해

지난해 4월 2일 출범한 여수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관협력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위기가정 400여 가구를 발굴해 지원했으며, 이달 현재 145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긴급생계비, 주거비, 집수리, 밑반찬 지원 등 6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취약계층 2700세대에 지원했다.

최근 희망복지지원단은 가장의 사고로 인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다문화세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민간 후원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성인 보호관찰자 재범방지 나선다

순천보호관찰소, '행복가득 준법 하나로' 시행

순천보호관찰소가 성인 대상 전문처우 프로그램인 '행복가득 준법 하나로' 프로그램을 오는 16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마약 등 재범 요인이 높은 사범에 대한 테마별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민간 전문기관(순천건강가정지원센터 외 4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으론 다양한 범인성 요인 차단에 한계를 느껴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행복 가득 준법 하나로'를 기획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기준 제시 및 재범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실행력 담보 및 폭력, 절도, 마약 등 재범요인이 높은 사범에 대한 재범억지를 위해 5개 테마 영역으로 4개월간 진행된다.

또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상 구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순천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장애인복지관, 여수 성폭력상담소, 광양여성상담센터 등 지역 내 전문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장섭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재범방지라는 보호관찰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첨병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새얼굴

"내 가족 살피듯 범죄 예방 최선"

김 영근 보성경찰서장

"민간 부문과 경찰의 협력 치안으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69대 보성경찰서장에 취임한 김영근(46)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5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믿음직스런 보성경찰상을 구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주민을 내 부모·형제·이웃 살피듯 정성껏 보살피고 직장동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화합, 배려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서장은 경찰대 6기로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경찰청 강력계장 및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남원 8가족 초청 간담회

남원시는 11일 "지난 10일에 2013년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에 선정된 8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결혼이민자 8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이주여성 남편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에 바빠 친정에 가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가족 동반 친정나들이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남원시에서 산 지 3년 이상된 자로,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면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한 가정에 왕복항공권이 제공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읍 향교·선은마을 도시경관개선 조경사업

부안읍은 11일 "문화재가 있는 향교마을과 선은마을 주변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조경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교마을은 향교 대성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93호)이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부에 있는 선은마을 주차장은 300여대의 차량을 일시에 주차가 가능하다.

읍은 이러한 두 마을에 각각 주민쉼터 제공과 경관개선을 위해 145㎡ 규모의 소공원 조성과 철쭉, 초화류 등 70㎡의 화단을 조성했다.

향교마을 이은기(74)씨는 "그동안 기반시설 낙후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나, 계획도로 개설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검찰, 부안군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인사비리 의혹… 분실된 근무성적 평정서 행방 초점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1일 김호수 부안군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오전 7시께부터 부안읍내에 있는 김 군수의 집과 군수실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군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서류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근무성적 평정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순서가 바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13일 군청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조사한 내용 등 그동안 수사자료를 층대로 사라진 인사서류 행방을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에 최고 인사권자가 관련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됐다"며 압수수색이 김 군수 수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압수수색이 당시 최종 인사권을 행사해온 김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2008년 당시 각각 군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낸 신모(57)씨와 이모(58)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김 군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남원 '제8회 수해 위령 추모행사'

남원시 이백면과 이백면 발전협의회는 11일 지난 1961년 발생한 수해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제8회 수해 위령 추모행사'를 효기리에서 거행했다. 이백 수해 참사는 1961년 7월11일 18만t 규모의 효기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면서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대도시서 직거래장터 1억9000만원 판매수익 올려

잡곡·한과 등 40여 품목

정읍시가 대도시와 각종 행사장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나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6월말 현재까지 서울지역 도봉구청, 구로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과 인천 연수구청, 대구 수성구청, 서울 코엑스 박람회장 등 총 16차례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설했다.

상반기 분석 결과 이들 장터에서 지역 농특산물인 쌀, 잡곡, 수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채소, 과일, 청국장, 복분자주, 한과 등 모두 40여 품목을 홍보 판매해 1억9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에도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대도시에서 모두 15차례 직판장을 설치·운영, 정읍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조이무역, (주)삼진글로벌넷, (주)에버굿, 전북종합무역(주)과 수출물류비 지원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배, 파프리카, 국화 등을 캐나다, 대만,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수출목표량은 50t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단신

정읍시, 15개 기업과 여성인력지원 협약

정읍시는 지난 10일 여성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주)고리 등 15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기업은 "여성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열린 '2013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실시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수료식'에서는 모두 14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전문자격증을 취득, 앞으로 전문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28가구에 대하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인 '여명건축'에 사업을 위탁해 구조 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구당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2억5400만원으로 134가구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한국자원봉사협,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개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주 전북대 전대학술문화관에서 제6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는 자원봉사 관련 전국 최대 규모 컨퍼런스로, 자원봉사계의 공동 핵심과제 및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진행된 컨퍼런스 기념식에는 전국의 자원봉사 지도자 및 관리자, 관련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군, 내일 '상상연극놀이터' 연극발표회

부안군은 2013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오전 부안예술회관에서 '상상연극놀이터' 연극발표회를 실시한다.

상상연극놀이터는 부안예술회관과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배우로 출현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극'을 주제로 '네 마녀와 백성들' 등 3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